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 (마 5:43-48)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온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온전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감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마 5:44)고 본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여 자기들이 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절대 진리이며 일점일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감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수주일, 헌금 생활, 봉사,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의 저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44절)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취주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45절).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2.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너무도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만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첨단 과학과 지식과 권세가 있지만, 거기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세상이 결코 따라 할 수 없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그의 제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Perfect Christian Life (Matt. 5:43-48)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says that if we want to live perfectly, we must be perfect as 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is word that seems to us burdensome does not mean that you do your best in order to be perfect, but it is an imperative sentence, "Be perfect."

As the Pharisees also felt the same pressure, they distorte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Love your neighbor and hate your enemy" (Matt. 5:44), and taught themselves moved by their own emotions. Like this, they thought themselves to be wise, by adjusting God's word, the absolute truth that cannot be adjusted one jot or one tiny stroke.

We must examine ourselves to find out whether we attend every Sunday, observe the offering, and do mission work solely based on our own logic or reason, or not.

1.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Jesus who is an author and perfecter of the Law say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oreover,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Matt. 5:44). Jesus explains to us that God equally caus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v. 45). God's love is transcendent love impossible to compare with the limited human love.

2. While we were still sinner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The love that appears here is 'Agape' love. Thanks to God's Agape love, while we were still sinners,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We were God's enemies. Jesus saved us who were His enemies and died for us to enjoy being fully reconciled to God.

We are the saved people who take after God. Therefore, it is no wonder that we should love our enemy with the love that was given from God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us.

My beloved Christians!

God wants us to resemble Him. He also says that we should live a holy and beautiful life of love like God Himself.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is is not burdensome but God's blessed word that makes us live our life resembling God's, and provides confirmation of our new, holy, and blessed existence.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comparable to God's love. There may be advanced science, knowledge, and power in the world, but there is not 'Agape' love. No matter how earnestly they may want it, they cannot follow it in the world. Because only Agape love made possible from God Himself, can make us love even our enemies. Therefore, when we live our agape life, worldly people will realize and experience the full and real love of God through us.

God makes us holy and love even our enemies with eternal agape love. By focusing on God, I sincerely hope that all of you, and I, will accomplish God's perfection with our faith.

제4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주제: 현대 목회와 치유 상담(치유목회)

3월5일(월)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3월5일(월) 오후2시 현대 목회와 치유 상담(치유목회)을 주제로 개강한다. 이번 학기는 1교시 허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한편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과 봉사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정	1교시	2교시
1주(3/05)	사도행전 강해	성경의 인간학과 예수님의 치유 / 김재진 목사((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2주(3/12)		영성과 심리치료 / 김영학 교수(나사렛 대학교)
3주(3/19)		사회적 관심과 정신 건강(소그룹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 / 김필진 교수(대전신학대학교)
4주(3/26)		개별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 유영권 교수(연세대학교)
5주(4/02)		자아분열증과 치유 / 이희철 교수(기독교신학대학교)
6주(4/09)	허주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인터넷 중독 치료와 예방 / 이형초 교수(사) Internet 꿈 희망센터(장)
7주(4/16)		정신병과 귀신들림 / 최의원 교수(연세로병원 정신과 병원장)
8주(4/23)		상담과 치유(병고침) 목회 / 홍인중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9주(4/30)		기독교 상담과 부부 가족 치료 / 오재은 교수(숭실대학교)
10주(5/07)		설교를 통한 치유(이야기 치료) / 박노철 목사(서울교회)

- 원감: 방효철 · 부원감: 이계홍 · 서적팀: 오은이/최종금 정갑례 황란옥 김정제 노순례
- 총무: 김종철 · 서기: 임송자 · 회계: 박현영 · 봉사팀 설비: 이남성/차도훈 한종표 김영호 김진달
- 접수팀: 김수호/박현영 나상민 전광환 박종숙 신선주 노인숙 · 차량부: 정동학/강승웅
- 안내1팀: 최종희/최금숙 김숙영2장호림 한호수 장효정 · 찬양팀(글로리아): 서희숙 구영미 김은희 김미성 박종녀 김경애
- 김순영 김미경 김미중 오정숙 · 식당팀: 김선영 / 제2권사회 회원
- 안내2팀 차봉사: 김유경/박복옥 이은희4김경순 안경옥 유안순

간호사관학교 52기 졸업 및 임관파송예배

21일(화) 오후7시, 간호사관학교 국군믿음교회에서



간호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파송예배가 우리교회 후원으로 21일(화) 오후7시 간호사관학교 국군믿음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에는 졸업생 20명과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고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당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한다. 비전2020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 초청, 금요기도회

2월 24일(금) 오후 8시 20분 - 본당



2월 24일(금)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모시고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또한 3월에도 특별 강사를 모시고 금요기도회를 진행한다. 초청 강사에 대한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전 '20세기 500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Five Hundred Leaders of Influence)로 선정

· 3월 9일(금) : 황성주 목사
1957년 - 서울대 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1994년 암전문병원인 '사랑의 클리닉'을 설립
-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전공
'꿈이 있는 사랑의 교회' 사역 목사로 활동

· 3월 30일(금) : 김명현 교수
KAIST 재료공학 석박사
전 한동대학교 교수, 현 성경과학선교회 대표

· 2월 24일(금) : 김영길 총장
1995.02 - 현재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1998 -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 발행/인명사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합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8]

(문 33)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출8:7, 7:11,22) 이들의 기적은 같은 것인가요?

(답) : 사탄은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살후2:9) 그래서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일 것이고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케 할 것을 경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마 24:24)

출애굽기 7장과 8장에서부터 사탄이 그의 권능을 나타냈고 모세시대에도 사탄의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대 환란 날에도 큰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계13:13)

거짓 기적들은 사탄의 상투수단으로 속이는 것, 환각(착각), 교묘한 술책인 것입니다. 바로의 술사들은 기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마술사들처럼 모자에서 토끼와 비둘기가 튀어나오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졌을 때 뱀이 된 것은 그들의 몸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지팡이처럼 보이게 단단하고 황홀하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개구리는 모세의 막대기가 만들어 낸 수에 비해 아주 적었습니다. 그것은 마술사의 모자 속에 있는 토끼처럼 처음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재앙 앞에서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입니다"(출8:19)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술사들의 권능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의해 수행된 피와 개구리에 대한 대처가 부적합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애굽 땅을 뒤덮고 있는 개구리들은 퇴치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들의 거짓 기적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난 기적 앞에 무가치하고 무력한 것이 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물들이 모세에 의해 피로 변하고 부패하여 고기들이 죽었는데(출7:21) 술객들은 어디서 물을 구해 피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술사들의 기적은 눈가림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주 계속)

사순절(四旬節, Lent)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금년은 2월 22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한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때보다 더욱 더 그렇게 구제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순절은 40일이 아니라, 46일 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이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행사를 하지 않는다. 금년도 부활절은 4월 8일이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신용식 장로 (선교위원장)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다섯 분의 장로님들은 선교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선교지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된 목적은 작년부터 시작한 선교지 우물파기를 통한 복음사역의 진척 상황과 교회 세우는 지역을 돌아보는 것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위해 선교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가장 먼저 서울교회가 설치한 선교지 우물 제1호가 위치한 캄보디아 캄땡초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우물을 펌프 해보니 100m 정도 깊은 곳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의 신학생들이 열심을 내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배시간이 되어 참석해 보니 뜨거운 찬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갈 듯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뜨거운 마음에 절로 머리 숙여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호 우물을 파는 캄보디아 캄땡스쁘에 있는 31해병



“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사역이
땅끝까지 이뤄지도록**

”

사단 사령부를 이재울 선교사와 함께 방문하였는데 우리는 이 곳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부터 모든 참모들의 사역을 받으면서 강단에 입장한 우리 일행은 500여명의 군장병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날 그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선포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재울 선교사님의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므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3호 우물을 시추하는 행사를 갖는 가운데 그 부대 장병들과 주변마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재울 선교사는 군선교를 통하여 이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갑진 장로님과 같이 현지인 제자 훈련을 수 년 동안 해 오고 있었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제자 훈련을 받은 17명이 수료를 하게 되어 박노철 목사님께서 수료자들에게 저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캄보디아 복음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교하므로 수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2월 10일,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7,800만 인구 중 70%가 1달러로 4식구가 하루를 살아가는 통계가 보여주는대로 미얀마는 의식주, 문화, 통신 등 모든 것이 너무나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서울교회가 지원하는 5곳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4년간 보냈던 현금으로 3년전 10-20

명이었던 교인들이 이제는 50-120명으로 된 참으로 기적과 같이 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중 가나에 있는 공부방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선교사님은 책과 공책, 연필 살 돈이 없어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을 모아 미얀마어와 영어를 가르치며 성경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1호 우물은 미얀마 현지 목사인 신자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 근처에 파주기로 하고, 미얀마 2호 우물은 Hre Ling목사가 시무하는 임마누엘 커뮤니티 처치 노스다몽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Hre Ling 목사님은 우물물을 팔아서 그 우물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Hre Ling 목사님은 사모님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14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고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대개가 불교신자라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통한 이 엄청난 부흥을 통하여 미얀마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시는 일이시므로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헌신할 뿐입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사역이 땅끝까지 이뤄지고 있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는 우기가 6개월, 건기가 6개월인데, 인구의 80%가 우기에 근처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회에서 파 준 우물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곳에 교회를 세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없고 지붕도 없는 노천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지붕을 설치해 주고 칸막이를 세워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고, 훈련된 현지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므로 캄땡초낭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날 우리는 서울교회에서 파송된 전호진 선교사님이 총장으로 계시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서 140명



전국 시민양성 - 신앙 강좌 1부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신앙강좌 1부

이광열 집사(신앙강좌1부 부장)

새해가 되고 나이를 더 할수록 우리 신앙인의 소망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종속하고 보다 발전하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하지만 늘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야하는 우리 삶에는 항상 게으르고 방황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되돌려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새해 하나님과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새해 작정한 나의 기도는 점점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런 질문을 가진 서울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40분 904호에서 자신의 신앙에 늘 부족함을 기도하는 성도님들께 새로운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신앙강좌 1부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 한국교회 회의 내적 갱신과 외적 신뢰성 회복을 강조하며 교회가 삶의 의미, 삶의 변혁을 이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부흥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김영한 목사님(송실대)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자기 안에 갖춰 있지 말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다고 강의하시며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가 알아야할 지혜와 삶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길 위한 신앙강좌 1부에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김영한 목사

이런 귀한 시간 속에서도 매년 새로운 다짐이 일상에서 반복되지만 우리의 작은 모임과 기도가 모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서울 교회에서 일어나길 기도하며 많은 성도님께서 우리 신앙강좌 1부에 함께 참여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904호실로 오십시오

다음 주는 신앙강좌2부이다. (편집부 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찬양대의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테너 이아람 성도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아람 성도는 “질그릇의 노래(김장디곡)”, “사랑 없는(최재도곡)”, “하나님의 은혜(신상우곡)” 세 곡을 찬양하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 재학중인 이시현 성도가 피아노 반주를 담당한다.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오정숙 변민중 박재숙 조용기(이경란) 홍석현
(다음 주 계속)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1일(화) 한국기독교학술원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21일(화)~22일(수) 미자립교회 목회자세미나에서 강의한다. 23일(목) 한국장로교 일교단 다체제 헌법초안위원회를 소집한다.

■ 귀국독주회: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인 김영언 선생, 2월 25일(토)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

■ 개업: 10교구 김안희 성도(김재근 집사 안분선 권사 차녀), 머슬케어 필라테스,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텔 C동 2912호

■ 특남: 5교구 박승현 집사 김윤미 성도

■ 특녀: 5교구 안재인 성도 곽진희 성도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2.19) 바울선교회(2.26)

■ 금주의 식사: 이용우 집사 차인화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제1, 2스데반회 수련회

3.1(목) 09~17시, 웨스트민스터홀

제1, 2스데반회는 ‘말씀으로 하나되는 스데반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한다. 3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강사로는 원종천 교수가 선다. 현재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대원 교회사 교수로 섬기고 있다. 스데반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나눔의 집에서 판매할 성도님들의 기증 물품을 기다린다. 제1권사회(회장 남태순 권사)가 관리하는 나눔의 집은 지난해에도 수익금 팔백여 만원 전액을 아가페 타운 건축 헌금으로 드린 바 있다. 이제 곧 시작할 41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지하 3층에 있는 매장을 재정리 하며 성도님들이 그 곳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에 전도사
유치부	2.26(주)~28(화)	서울교회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6(주)~28(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2.20(월)~21(화)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청년1부	2.29(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 / 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목)~3.3(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에바다부	2.25(토)	서울교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임규현 목사
영어예배부	2.24(금)~25(토)	아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박노철 목사 / 스티븐 마티놀리치 목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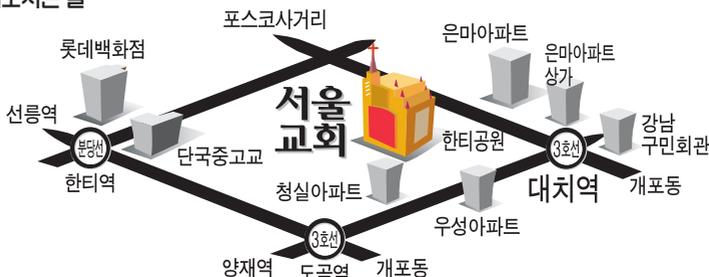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물파기 운동과 교회건축 계획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전개되도록
2. 2월 21일(화) 오후 7시에 있는 간호사관학교 52기 졸업감사를 통해 모든 간호사들이 사명자로 현장에 파송될 수 있도록
3. 김영길 한동대 총장 초청 금요집회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참 교육의 의미와 성경적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